**[키즈쉬즈한의원] 합격 자기소개서**

**직무: 의료업무일반**

**1. 성장과정**

공기 좋고 청량한 창원에서 자라온 저는 나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더 위할 줄 알았으며, 친구들도 아끼며 작은 일도 도와줄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부유하진 않았지만, 마음만은 풍요롭고 화목한 가정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IMF위기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잘 안되면서 저희 가족들은 외가친척들이 계시는 울산으로 이사 오게 되었고,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울산으로 왔을 때 적응하기가 약간 힘들었으나, 오빠와 사촌들이 제가 외롭지 않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전 조금씩 새 친구들하고 어울려 지내게 되면서 다시 예전처럼 활발하게 중학교 생활까지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성격 및 장, 단점**

제가 자라오면서 주위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칭찬은 예의 바르다, 인사를 잘한다, 그리고 잘 웃는다 입니다. 대학생이 되고 처음 울산 oo마트 에서 서비스업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는데 하루에 수많은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힘들기도 하였지만 처음 시작할 때 서비스 교육을 들었던 마인드를 잊지 않고 항상 고객님들에게 웃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고객님들은 물론 회사 안의 관계자분 들에게 아주 큰 칭찬을 받았고 더불어 너는 다른 어떤 서비스직도 다 잘해낼 수 있을 것 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는 집에서는 귀여움을 받는 막내였지만 사회에서는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은 욕심도 생겼으며 그 결과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이든지 겁을 먹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3. 학창시절**

저는 고등학교 진학을 울산컴퓨터 과학 고등학교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택했던 영상전자과는 다양한 실습 과정을 거쳤으며 친구들과 재미있는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에서도 많은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병원 쪽으로 결정하게 된 계기는 저희 외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잦은 병원 입원과, 외래를 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외손녀로써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셨고 이쪽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곁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배웠으며 저의 진학 결정은 어머니의 영향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 쪽으로 취업을 하면 외할머니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부산정보대학 의무행정과에 원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대학입학이 확정되면서 저희 가족이나 친척분들이 너무나 기뻐하셨으며 저에게 격려와 열심히 하라는 응원을 많이 보내셨고 저도 힘찬 각오와 함께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활은 지금까지 해왔던 학교생활과 약간 달랐습니다. 비슷한 꿈을 꾸고 있는 동료들을 만나서 함께 경쟁하면서도 재밌게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의무행정과를 다니면서 저의 확실한 꿈과 목표가 뚜렷하게 생기며 신입생 때부터 노력해 왔으며,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4. 지원동기 및 포부**

저는 외할머니 손을 잡고 병원에 몇 번 외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마다 그 병원에 계시는 원무과나 간호사선생님들께서는 저희 외할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분들께 친절하고 한없이 상냥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외할머니께서도 내 손녀가 이런 병원에서 저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저 또한 의사가 될 실력은 물론 없고, 원무과나 코디네이터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 의무행정과를 선택하였고 반드시 1지망으로는 의료기관으로 취업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취업하게 된다면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배우는 입장에서 성실함을 보이며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내원 해주시는 고객 분들에게 항상 친절함과 미소를 선사하며 제가 맡은 업무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 장점인 웃는 표정을 살려서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